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b>뿐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4월 30일(일) 총 2매		
담당 부서	감염병관리과	담 당 자	• 감염병대응팀장    김선희 ☎440-7811 • 담당자            한유란 ☎440-7819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역대응체계 가동**  
**-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비상방역근무, 지역사회 확산 방지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하절기 기온상승으로 인한 병원성 미생물 증식과 세균성 장관감염증 집단발생 우려에 따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비상방역 근무는 평일 09시~20시, 주말·공휴일은 16시까지 실시하고, 그 외 시간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설사환자 집단발생을 감시할 계획이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설사환자 집단발생 시 지역사회로의 확산방지를 위해 관할 지역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즉시 출동해 현장 역학조사 실시 및 검체채취 등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필요시 시청 역학조사관이 역학조사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환자 발생시 군·구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담당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응소 점검 모의훈련을 평일과 주말 각 1회씩, 총 2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훈련은 환자 발생상황을 가정하고 군·구 보건소와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로 단체 급식 운영과 단체활동 등이 정상화됨에 따라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의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준수하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집단발생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